

### 신안, 세계김밥페스타서 선보일 6종 김밥 개발

우수 농수산물 이용... 비건김밥·홍어카츠김밥 등

신안군은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선보일 신안김밥 6종을 개발하고 김밥 연구회원 30여 명 대상으로 지난 15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어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김밥페스타에서 관람객들에게 2000원, 4000원, 7000원의 종류별 판매로 착한 가격과 함께 골라 먹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군과 신안김밥연구회원들이 다양한 김밥을 만들어 보고 그 가운데 6종을 엄선하여 회원 간 같은 레시피를 공유하여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6종의 김밥은 신안 소금김밥+대과김치, 신안그냥김밥, 신안정원김밥, 신안양파김밥, 신안바다김밥, 신안홍어카츠김밥이다. 군의 우수 농수산물인 대과, 양파, 전복, 톳,

신안=강축복 기자

### 해남, 14개 읍·면 순회 '현장대화' 실시

주민의견 청취... 읍·면민의 날 행사도 개최

해남군은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5월 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중 열리는 현장대화는 읍·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추진된다.

현장대화에서는 2023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군민 보고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군정 보고 후 군수가 직접 주민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지역 현안사항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한 발전방향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

취한다. 15일에는 산이면에서 처음으로 열린 현장대화에서는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정 발전 방안과 산이면 현안 사업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읍면 현장대화 일정은 16일 북평면, 17일 옥천·화산면, 18일 문내면, 23일 송지면, 24일 마산·계곡면, 25일 화원면, 26일 황산면, 29일 북일·해남읍 5월 3일 현산면, 8일 삼산면 순으로 개최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 영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영암읍 상인·주민 '월출산과 달' 주제 새단장

영암군 영암읍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지역상인과 주민이 주도해 동네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

영암월출마을관리사회 직원동조합을 주관기관으로 영암군과 영암자율상권발전동조합, 무등산브루어리로 구성된 영암군 컨소시엄은, '월출산과 달'을 주제로 영암읍 중앙로 일대에 새 단장하는 계획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선정으로 컨소시엄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권활성화센터 조성' '상권 거버넌스와 로컬 아카이빙 구축' '중장기 상권 전략 수립' '빈 점포 활용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에 나선다.

컨소시엄은 영암군에서 상인과 주민이 상권 활성화를 공동 모색하는 첫 혁신사례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 나서는 뜻깊은 사업이다. 영암과 영암읍의 특색을 살린 동네상권으로 달빛생태도시의 모습을 창조해줄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지역경제 '훈풍' 기대

5~6월 시범 라운드 등 11회 대회... 방문객 8000여 명 예상

지역 식당·숙박업 등 소비 활발... 경제효과 14억원 이상 기대

올해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작년 피싱 마스터 대회에는 참가자가 450명으로 참가자 대부분 가족, 지인들과 동행해 마량항을 찾아 총 1800여 명이 방문해 3억7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증대했다.

올해는 대회 참가자만 2030명으로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산할 때 8000여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소 14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6월 시범 라운드를 시작으로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가

강진 마량항 일원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관내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은 1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객들은 마량 내 식당, 카페, 편의점,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 활발히 소비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액이 16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여세를

보아 올해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은 2만여명, 지역경제 유발 효과액은 최소 2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유치와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는 마량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해양관광 분야 중요한 정책"이라며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는 단순 행사성이 아닌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 완도, KB국민은행과 함께 '작은 도서관' 조성한다

KB국민은행·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업무 협약



완도군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KB 후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KB국민은행 호남지역그룹 노현주 대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김수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에 생활 밀착형 도서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는 완도읍의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약산면의 진달래 작은 도서관 조성 이후 두

번째 선정이다. 사업 선정으로 완도읍의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유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하고, 원목 서가 및 책상, 안내 데스크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도서관 조성 후유금 지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완도군에서는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보, 정기 도서 구입 등을 추진한다.

신우철 군수는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의 문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무안, 어린이 구강 교실 운영

내달 30일까지 13개소 대상

무안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집 13개소 378명을 대상으로 '치카푸카! 어린이! 구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강 교실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 미취학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진행해 구강건강의 기초를 다지고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초기 충치 진행 억제, 충치 면역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어린이는 구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올바른 양치법을 알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 목포,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 선정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노후 상수관망 교체 등 혁신기술 도입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장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실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의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목포시는 전남 최초 도지역 지방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및 체계화된 누수방지 업무를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89.79%) 등 지역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표창에서 전라남도 지자체 중 기관이 수상한 경우는 목포시가 유일하다.

이런 상수도 안정화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격년으로 이뤄지는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인 '나' 등급을 받아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 2021년에는 최상위등급인 '가' 등급 받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운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대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및 혁신 기술 도입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 신안 '1004섬 낚시대회'

오는 10월 중으로 연기

신안군 1004섬 낚시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회 1004섬 낚시대회를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10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송공리 해상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예상되는 강우와 높은 파고로 낚시대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연기 결정을 하였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연기 결정한 1004섬 낚시대회를 감성돔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10월로 잠정 연기하고, 대회의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